

북구 6개동 동구 편입, 광산구 2개동 북구 편입안 유력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재추진 배경과 개편 내용

이윤섭 광주시장이 기초·광역 단위 행정구역 재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꺼내 들면서 그 배경과 향후 계획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낙후한 지역을 살리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광주지역 인구수를 재배치하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의 행정 대통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민선 7기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고, 구간 경계조정은 국회의원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구간 경계조정과 행정 통합은 시대 흐름상 더 이상 늦추거나 방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금 당장 복잡하고 귀찮다고 방치·외면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광주시정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말 활동 동을 중단했던 기획단을 재가동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10만 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의 심한 인구편차와 기형적 선거구 등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구간경계 조정에 따른 지역 내 갈등 해소

극심한 구간 인구편차 바로잡기 이시장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도 조정 이유다.

광주에선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한 게 마지막 경계조정이다.

인구가 부족해 남구와 합쳐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한 동구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인구 유입이 활발한 광산구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머지 구는 관망세다. 최근 이윤섭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조정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경계조정 기획단의 개편안은 2018년 용역안이 배대다. 시는 당시 용역기관을 통해 소·중·대폭 등 3가지의 경계조정 시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간 인구 편차는 당시 23.5%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조정하고 광주시 8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폭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

다. 구간 인구 편차는 16.3%로 완화된다. 중폭안은 소폭안과 같이 북구 6개 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구간인구 편차는 18.8%다. 대폭 조정안은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이다. 구간 인구 편차는 13.2%로 낮아지지만, 대부분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당시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중폭 39.8%, 대폭 34.4%, 소폭 25.8% 순이었다. 국회의원, 시·구의원, 조정 대상 지역 주민 등은 소폭 개편에 대한 선호도가 48.1%로 가장 높았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한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남아 할 산은 많다.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선 광주시가 최종안을 도출해 각 자치구에 제안하면, 자치구는 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민과 구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2018년에도 북구·광산구 일부 지역 주민과 지역의회는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해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에만 6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임기 내 경계 조정을 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추석연휴 국민들 코로나 방역 협조 깊은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연휴 내내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우리가 컸던 개천절 불법집회와 관련,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빈틈 없이 차단했다"며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정상운영됐고 의료진은 연휴도 반납하고 코로나와의 전선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와 해양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준 것도 다행"이라며 "이동량이 줄어 교통이 분산된 데다 부처의 대비와 국민의 안전의식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이처럼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긍정적 결과들은 모두 국민의 적극적 협조 덕분이다.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이라며 "연휴기간 이동 인원이 3천100만명에 달한다. 주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 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의 속도도 여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4차 추경 등 적극적 경기 대책을 펴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경계조정 개편대안 (용역)

구분	소폭개편	중폭개편	대폭개편
개요	· 북구 6개동 → 동구 편입 (두암 1~3, 문화, 석곡, 풍향)	· 북구 6개동 → 동구 편입 · 광산구 2개동 → 북구 편입 (첨단1·2동)	· 북구 12개동 → 동구 편입 · 광산구 2개동 → 북구 편입 · 서구 1개동 → 남구 편입
지역형평성	구간 인구편차 16.3% (광역시 평균 18.6% 이내)	구간 인구편차 18.8% (광역시 평균 18.6% 초과)	구간간 인구편차 13.2% (광역시 평균 18.6% 이내)
생활편의성	· 동구 인접지역으로 생활 편의성 확보	· 첨단 1·2동 산업특성 반영 · 광주시 2030도시계획의 북부 대생활권	· 첨단 1·2동 산업특성 반영 · 광주시 2030도시계획의 북부 대생활권 · 품앗이구의 진월지구 연계 강화
지역형평성	동구에서 분리(1980년)	광산구 첨단 1·2동은 1988년 이전 전라남도로 역사적 동질성 부재	광산구는 1988년 이전 전라남도 서구 및 북구와 역사적 동질성 부재
시민대상 설문결과	25.8%(선호도 3위)	39.9%(선호도 1위)	34.4%(선호도 2위)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48.1%(선호도 1위)	37.8%(선호도 2위)	13.1%(선호도 3위)
장점	· 갈등발생 최소화 · 과거 동구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역사적 동질성 ·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 시민대상 설문결과와 선호확보 · 시 도시계획 생활권 반영 · 북구의 산업특성 반영	· 중장기적 규모균형 확보 · 미래지향 인구형평 충족
단점	· 전반적 규모균형 수준 미흡 · 시민대상 설문결과와 선호 미흡	· 중장기적 규모불균형 재발 가능성 · 역사적 정체성 미흡	· 이해관계자 설문결과와 선호미흡 · 갈등발생 최대

국민의힘 오늘 광주 방문...5·18단체와 만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6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만남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광주가 제2 지역구인 하태경, 김은혜, 김예지, 이재익, 윤

영석 등 광주동행 국회의원 8명이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후 5월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호남 포용 전략차

발표한 '호남에 제2지역구 갖기'를 통해 광주를 지역구로 배정받은 의원들이다.

이날 회동은 지난 8월 19일 광주를 방문한 김종민 비대위원장과 5월 단체간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민의힘이 5월 단체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받을까...여당 지도부서 논의 제기

한류 국위 선양에 경제 효과

국방장관 "국민 공감 선행돼야"

여당인 민주당에서 K팝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

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TS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BTS와 e스포츠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우리의 청년들에게 병역 면제를 정식으로 청원합니

다', 'BTS 군 면제 청원합니다' 등 제목의 청원글이 다수 게재됐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병역 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을 위해 법 개정까지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도는 좀 아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도수 레티놀 분기질
필사 주름 전용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 40~59세 성인 여성 (n=82) 2019.09.16~10.17 17주간 임상연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